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21年2월1일 (월) 제 803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 영 철 · 편집인/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전도주일  
설교

#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누가복음 5:1-11>



김 인 과 목사 (후쿠오카교회)

이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호수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हे하는 길에 있어서, 신앙의 길에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만나, 그 배위로 오셨습니다. 그 호수의, 배 안으로, 베드로의 일터로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출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눅5:4) 여기에서 ‘깊은데’ 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신앙의 구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 하는 순종의 말씀과 함께, 그물을 내려,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란에서 205세로 죽은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불러,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12:1)고, 말씀하셨고, 아브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자손은 그 말씀의 언약대로 ‘하늘의 뜻처럼’ (창15:5) 많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골격입니다. 많은 번민과 고뇌를 동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걸음씩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 다른 배에 있었던 동료 어부들 까지 불러, 잡은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던 그들은 드디어, 영의 눈이 뜨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눅5:8)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임하자 그들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향하는 인간이, 그 영혼의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음성을 내 속에서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뵈는 순간 죄인 된 자신의 모습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어부들을 향해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인이었던 사람을 용서하여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고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며 받아 주셔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부들은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배에 품꾼과 함께 버려 두고(마가1:20), 예수님을 따랐다 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3년 반 후,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의 호수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장소 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큰 물결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첫 아침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21:15이하-)

모든 사람의 신앙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사명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명입니다.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 두고 따라도 아쉬움이 없는 삶, 그곳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2월 14일 주일은 총회의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전도의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언어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성령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 讚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 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고베교회

# 창립 100주년을 맞아 고베교회 한세일목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재일대한 기독교회 고베교회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100주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일하셨음을 증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12년 전에 새 예배당 건축 계획을 세웠고 현재는 염원하던 예배당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기공식은 작년 12월에 거행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완공 예정 기간동안 임시 성전도 마련되어 신도들이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시대로 인해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의 고령화 때문에 예배를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도 모두가 단결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짧지만 고베 교회의 1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베 교회의 시작은 지금부터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7년 고베 신학교 전공과 재학생 임택권, 이인식이 고베

재류의 동포 신자와 예배소를 정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8월 31일 평안북도 선천교회당에서 제7차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그 총회에서 당시 고베중앙신학교(현 고베개혁과 신학교)의 신학생인 임택권이 고베 기독교 신자의 상황을 보고하고 동포에 대한 전도 원조를 요청하여 매월 10엔의 원조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3년 후인 1921년 10월 30일에 고베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22년 3월 경남노회가 김이곤목사를 고베에 파견할 당시 고베 지역을 중심으로 예배소가 7개 있었고 신자는 129명이었습니다. 또 경남노회에서 선교비 원조가 234엔 있었습니다.

1927년 Luther Lisgar Young 선교사가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파견되어 일본을 방문하여 고베를 거점으로 일본 전역에 산재한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36년 제2회 재일본조선기독교대회(현재의 총회에 해당)를 효고교회(현 고베교회)에서 개최하여 L.L.Young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후임으로 김치선목사가 취임하게 됩니다. 1940년 4월에 종교 단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장덕출목사, 남보라목사(Paul Rumball)가 고베교회의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52년 1월 20일 고베 교회당 헌당식(하야시다 교회)이 거행되었습니다.

1956년 12월 김정찬목사(김해철 장로의 부친)가 위임합니다. 1974년 고베 교회는 목조에서 철근 교회당으로 다시 지어졌고, 1985년 10월 신중국목사가 고베교회에 위임했습니다. 1995년 1월 17일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교회당은 반파되었지만, 전국 교회의 지원과 기도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신도들이 힘을 모아 일어 설 수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4일 도로 공단의 계획으로 교회가 그 자리에서 퇴거할 수 밖에 없어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001년 1월 28일 권영국목사가 위임하였고, 2012년 3월 18일에는 현 담임 목사인 한세일목사가 위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베교회의 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베교회가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을 위해 KCCJ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지원, 지도 부탁드립니다.

히라노교회

# 박진열 명예목사가 소천 1984년부터 일본선교사로서 봉사



히라노(平野)교회 박진열 명예목사가 지난 2020년 12월 16일, 78세의 지상 생애를 마치고 소천하여, 18일 히라노교회에서 김종권목사의 사식으로 장례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故·박진열목사는 194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84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라(奈良)교회를 개척 설립한 후에 1997년부터 2012년 은퇴까지 히라노교회에서 목회 하였으며 관서지방회장, 총회 부서기 및 선교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하마마츠교회

# 박무수 명예목사가 소천 1987년부터 일본선교사로서 봉사



하마마츠(浜松)교회 박무수 명예목사가 지난 2020년 12월 12일, 한국 경기도 구리시에서 소천하여 한국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85세였다.

故·박무수목사는 1935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72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87년에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아 하마마츠교회에서 2005년까지 목회하고 은퇴하였다. 은퇴후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였다. 중부지방회장을 역임하였다.

新教出版社・新刊案内 2020年11月25日発売

# 日韓キリスト教関係史資料Ⅲ 1945-2010

記憶を未来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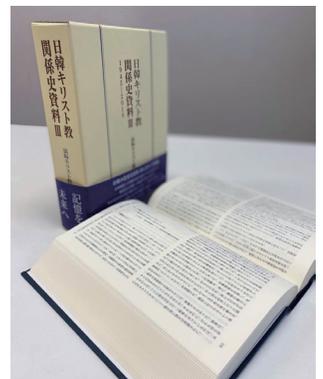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A5判・上製・総1,115頁・本体15,000円(税込定価16,500円) ISBN 978-4-400-41224-3 C1016

日韓の貴重な資料500点以上を取録。アジア太平洋戦争における日本の敗戦から日韓基本条約締結までの交流を第Ⅰ部、韓国民主化闘争と日韓連帯の動きを第Ⅱ部、そして戦後補償問題を含む日韓の交わりと統一への模索を第Ⅲ部とする。とりわけ、韓国民主化運動における日韓の資料については他の追隨を許さぬ充実した内容。今後日韓関係を論じる上で欠くことのできない基本資料集がついに成る。

既刊 日韓キリスト教関係史資料Ⅰ 1878-1922 現在品切中

日韓キリスト教関係史資料Ⅱ 1923-1945 A5判・850頁・本体14,000円



외기협

# 전국협의회·전국집회 개최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1월 28~29일, 외기협(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합 협의회) 제 35회 전국 협의회가 열렸다. 1987년에 결성된 외기협은 그동안 매년 1월, 삿포로, 센다이, 사이타마, 도쿄, 가와사키,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 기타큐슈와 각지를 돌며 전국 협의회와 전국 집회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 확대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금번에는 도쿄에서 발신하는 온라인 회의가 되었다.

“코로나 위기와 21세기 이민 사회의 선교 과제”라는 주제로, 가맹 교단·단체와 각 지역 외기련 대표자 및 관계자 66여명이 참석했다.

中井淳司사제(카톨릭 히로시마 정의와 평화 협의회)의 개최 예배 후 有住航목사(일본기독교단下落교회)가 <팬데믹·레이시즘·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연. 둘째 날은 佐藤信行(외기협 사무국)가 기초보고 <2020년 이민·난민 긴급 지원 기금과 2021년 입법편 개악(改悪)>을 한 뒤, 李相勲목사(関西学院大)가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日·韓·在日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는 외국인도 일본인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선교 과제와,

2021년 활동 계획을 확인했다.

전국 협의회의 후, 29일 밤 전국 집회는 早稲田奉仕園에서 전국에 Zoom으로 약 120명이 교회, 가정에서 참여하였다. 제1부 예배에서는 渡邊さゆり목사(마이너리티 선교센터)가 열왕기하4장1~7절에서 <탈생의 수취 사회(脱生き恥の社会)~엘리사가 여자에게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주었다. 제2부에서는 훗카이도에서 큐슈까지의 각지 외기련과 한국 NCC총무로부터 메시지가 전달된 후, 특별 보고로 코로나 재난과 유학생·기능 실습생 지원, 제일 미안마인 지원이 삿포로와 도쿄에서 보고되었고 마지막으로 김병호총간사의 기도로 집회를 마쳤다.

팬데믹·대량 실직·인종주의 - 이 세 가지가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매일 악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라는 외침이 일본에 도착했다. 우리는 그 외침에 연대하는 동시에 <KOREANS Lives Matter!>라고 외치자고 마음 깊이 결심하게 된 집회이기도 했다.

報告 : 佐藤信行 (RAIK)



## 특수기

# 유학목사 소식

## 아라이 유키 목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잠시 저의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제일대한기독교교회에 속한 목사라면 한국어 설교는 필수로 해야 된다는 것은 교역자가 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계가 될 수도 있지만 교역자가 된 후 한국으로 유학 갈

타이밍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 교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2019년에 드디어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심한 한국 유학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에게 시련 그 자체입니다. 그 시작이 2019년 3월부터 서울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을 줄 알고 그 해 1월에 나고야교회 부목사를 사임하며 한국으로 떠날 준비와 유학 준비를 서둘러 진행했는데, 결국 같은 해 9월이 되어서야 정식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7개월 동안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인생에 있어 '교회'는 너무나도 당연한 공간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도 '교회'는 저에게 바로 '생활의 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교회'라는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저에게 당연했던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를 하나님께서 새삼 깨닫게 해 주셨습니

다.

그렇게 교회가 주는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하던 즈음, 코로나19라는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그 전까지의 생활과는 180도 달라졌지요.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 악화로 인하여 여러가지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타이밍에 한국에 보내셨을까 하며 매일 같이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광야 앞에 섰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고통, 갈등들은 오로지 제 중심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해 버린 현실과 지금까지 느껴왔던 가치관이 모두 뒤집히면서 저의 무력함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받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저에게 위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 곧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걸어갑시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과 기쁨을 기대하며...

## 公 告

在利害関係者及び信者各位  
 本法人は、下記の不動産を担保に、教会堂新築にかかる費用として、下記金融機関より融資を受けることを公告します。  
 ・土地 神奈川県川崎市桜本一丁目8番22 423.14㎡  
 ・鉄筋造陸屋根 4階建  
 ・金融機関 川崎信用金庫 大島支店 融資金額 2億9,000万円  
 ・社会福祉法人青丘社への4,000万円融資のため土地を担保に供する。  
 2020年12月27日 在日大韓基督教会川崎教会 李明忠

## 2021年総会手帳 訂正のお知らせ

2021年の総会手帳の巻末の住所録で下記の通り間違いがありました。本人及び関係者に深くお詫びして下記の通り訂正致します。  
 ●平野教会：隠退長老 李昌秀→長老 李昌秀

## 福音新聞3月号休刊のお知らせ

福音新聞2020年3月号は諸般事情により、休刊いたします。

# 코로나 위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외침 2021

## ~2021년, 제35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집회 선언~

우리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합 협의회> (外キ協)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COVID-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1월 28일부터 29일에 걸쳐 제35회 전국 협의회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21세기 이민 사회의 선교 과제> 라는 주제로 각 지역 외기련 (外キ連) 및 외기협 (外キ協) 가맹 각 교파·단체의 대표자 등 63 명이 참가하여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협의했습니다.

전염의 위험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회적·경제적으로 그 생활 속에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와 시민 단체가 실시한 긴급 모금이나 생활 지원 등의 보고를 듣고, 행정의 보다 포괄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현상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송환 기피죄 등의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관법 (入管法) 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특히 요한 계시록에서 세계의 현실을 약자·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의 의의를 나눴습니다.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과거의 전쟁때 처럼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책이 위정자에 의해 반복되려고 합니다. 생명과 존엄을 짓밟고 억압하였던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되면하였던 것이 오늘의 일본 사회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인권이 지켜지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했던 과거의 역사와 마주하여 그 잘못을 밝히고, 또한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주민으로서 생활을 지원하고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며 각 각의 문화를 서로 나누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한국·在日교회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역사와 마주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대화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진재로부터 10년을 맞이한 <후쿠시마>에서 외국인 피해자와 그 자녀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난민 신청자·초과 체류자에 대한 생활 지원에 노력하면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인종 차별 철폐 기본 조례>의 제정, 국가에 대한 <외국인 주민 기본법> 및 <인종 차별 철폐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학대를 당해 억압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자유와 해방이 약속된 미래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교회 또는 다문화·다민족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시민 단체·지역 사람들과의 협력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라인·네트웍을 통해 <제 35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집회>를 개최하여 연대를 계속해 가는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화해와 평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추구해 가는 것을 복음 선교의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결의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제35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 기본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합 협의회

### ルツ結婚相談所

在日韓国人・帰化人、結婚・再婚を望んでいる人へ  
年齢 23歳~70歳まで、北海道から九州まで

親身になってご成婚までねばり強くお世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090-3429-9707 代表 崔貞淑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